



라면이 익기를 기다리는 시간

학생중 3-2 김준서

땀방울이 떨어진다. 땀방울과 함께 눈물도 떨어진다. 흐르는 눈물은 얼굴이라는 바다를 점점 채워가고 있다. 나는 그 물방울이 바다를 완성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었다. 모든 것은 언젠가 바다로 흘러갈 것이라는 어느 책 속 구절처럼 눈물도 바다를 이루면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내 예상과는 다르게 바다를 이룬 물방울들은 점점 증발해 내 마음속 먹구름을 이루었고, 먹구름에서는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뚝뚝.....

내 마음속에서 흘러내린 빗속에는 별 하나가 반짝거린다. 아. 멀게만 보이는 빛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그 속에 담긴 한 사람의 얼굴이 멀어져 간다. 저물어 가는 별 속의 그 사람은 하나의 점으로 가고 있다. 그 사람은 할아버지이다. 할아버지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였다. 어릴 때 할아버지 집에 가면 할아버지와 나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할아버지, 오늘은 나무 자동차 만들어 주세요.’ 하면 할아버지는 금세 나무로 자동차를 만들어 주셨고 ‘시계가 고장 났어요.’ 하면 뚝딱 고쳐주시던 만능 할아버지였다. 그보다 더 신기한 재주를 할아버지는 가지고 계셨다. 바로 내 마음을 읽어내는 재주였다.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나에게

게 말없이 배즙을 끓여주시곤 하셨다. 그 배즙을 먹으면 마음속에 쌓인 양금이 사르르 녹으면서 나를 따뜻하게 하는 난로가 되어주었다. 또 할아버지는 다른 것도 해주셨다. 내가 슬플 때면 나를 편의점에 데리고 가신 것이다. 편의점은 언제나 밤늦은 시간까지 우리 곁을 지켜주는 안식처이자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나만의 편의점 레시피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나는 편의점이 좋다. 편의점에 가면 딸기 우유 한잔에 내 감정을 묻어두고 슈크림빵으로 달콤하게 하루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편의점에서 항상 이것을 사주곤 하셨다. 바로 라면이다. 라면이 바로 할아버지의 편의점 레시피였던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행복을 불어넣을 수 있는 치유 레시피가 할아버지에게는 라면이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암에 걸리셨다. 할아버지에게 허락된 시간이, 나와 할아버지 사이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다. 믿을 수 없었기에 무서웠고, 무서웠기에 믿을 수 없었다. 어쩌면 믿기 싫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추억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마음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갑자기 찾아온 비극은 나를 저 깊숙한 늪으로 빠뜨렸다.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내가 손을 뻗는 곳마다, 내가 발걸음을 내딛는 곳마다 할아버지가 있었다. 어느 곳이든 할아버지가 있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도 해보고 새로운 취미로 나를 채우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러던 나에게, 감정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나에게, 손을 뻗어준 것은 다름 아닌 라면이었다.

할아버지와 함께 가던 편의점에서 먹은 라면은 할아버지와 행복했던 추억들이 떠오르게 했다. 나는 라면에 끓는 물을 넣어 놓고 기다리며 생

각했다. ‘할아버지와 의 기억들은 모두 행복했던 것들이었는데, 왜 나는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눈물짓고 있는 것일까?’

그 뒤로 나는 내 마음속에 자욱하게 낀 먹구름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내 마음가짐도 점점 변하고 있었다. 나의 삶에 대한 태도도 변하고 있었다. 그렇다. 라면이 나의 인생을 바꾼 것이다.

나는 종종 긍정적이라는 칭찬을 듣곤 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 길게 이어진 라면의 면발처럼 끊이지 않고 노력하고 도전한다. 순간의 비극은 영원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테지만, 그 비극은 조금만 시선을 바꿔도 삶의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슬픔을 내 안에 자리 잡은 힘으로 승화시키는 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던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어린 나에게 너무 힘든 것이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슬픔을 겪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라면이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에게 긍정의 힘을 불어넣어 주고 싶었다. 새 학년이 시작되면서 반이 바뀌고 나는 한 친구를 만나게 된다. 그 친구는 밝고 긍정적인 친구였다. 곁에만 있어도 나도 덩달아 행복해지는 비타민 같은 친구였다. 그는 나와 주말마다 함께 도서관에 가기도 하고, 운동도 같이 하며 금방 친해졌다. 그는 슬픔이라는 감정을 모르는 친구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심리 검사 같은 것을 했다. 기분을 색깔로 표현하는 활동도 하고, 각종 나의 정신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활동들을 했다. 그렇게 검사를 한 후로 우리는 결과표를 받았고 나와 친구들 모두 별 이상이 없었기에 검사를 했다는 사실마저 잊고 지내고 있었다. 그러다, 나는 쓰레기를 버리다가 우연히 어떤 종이를 발견하게 된다. 그 종이는

다름 아닌 누구보다 밝았던 내 친구의 검사 결과표였다. 결과표를 보고 나는 깜짝 놀랐고 다른 친구들이 볼까 봐 급히 다시 원래 자리로 넣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볼까?’ 등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나는 내가 슬픔을 이겨냈던 방법을 떠올려 보았다. 결국 필요한 것은 시간이었다. 라면이 다 되기까지 기다린 시간, 그 짧은 기다림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그 짧은 기다림 속에서 나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인생이라는 영화 속 행복했던 기억만을 파노라마에 담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에게도 필요한 것은 비극을 희극으로 바라보는 것이었다. 어느 책은 비극도 언젠가 나중에 보면 웃음 나오는 희극이라고 표현한다. 솔직히 아직까지도 그게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하다. 비극은 생각할수록 점점 비극이 된다는 것을 말이다. 아무 생각 없이 라면이 다 되기를 기다리던 나처럼 나 스스로의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중요하다.

나는 그 친구를 편의점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그에게 컵라면을 하나 사주었다. 그리고 라면이 익기를 기다리며 우리는 라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꼭 닫은 라면 뚜껑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면서, 꼭 닫힌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상하면서. 곧 라면이 다 되었고 나와 친구는 라면 뚜껑을 열었다. 꼭 닫힌 마음이라는 문에 노크를 하는 순간이었다. 문을 가로막고 있던 자욱한 먹구름이 걷히는 순간이었다.

나중에 그 친구는 진짜 웃음을 되찾은 후 시간이 흘러 나에게, 내가 해준 말이 그가 지금까지 올 수 있게 해주었다고 말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뒤. 라면이 익기까지 기다려야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너도 마음의 억힘이 끝이 나고 나면, 그 고통이 끝이 나고 나면 행복해질 거야. 저 라면이 너에게 행복을 주는 것처럼 말이야.”

라면을 보며 생각한다. 라면이 많은 사람들의 꼭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마음의 먹구름을 걷어주기를 말이다. 라면이 따뜻한 난로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이다.

